

선택적 신 동맥 색전술로 치료한 신 동맥 출혈을 동반한 신 증후성 출혈열 1예

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진단방사선과학교실*

임지현 · 최희석* · 황재철* · 신성준 · 김경수

신 증후성 출혈열 (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)은 한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전신의 혈관계 특히 모세 혈관 및 세동맥 등이 광범위하게 침범되어 임상적으로는 발열, 신부전, 출혈성 경향을 나타낸다. 신 증후성 출혈열의 임상상은 피하의 점상 출혈에서부터 폐, 신장, 비장, 뇌하수체 등의 출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. 또한 병리학적으로 신 수질의 울혈 또는 출혈은 본 질환의 특징적인 소견이며 신 증후성 출혈열의 자연 경과 혹은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신장의 자연 괴멸 및 신장 주위 출혈과 후 복막강 출혈 등이 보고 된 바 있다. 저자들은 신 동맥 출혈로 인해 다량의 신 주위 혈종을 동반한 신 증후성 출혈열 환자에게 선택적 신 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48세 남자 환자가 5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, 2일간 지속된 좌하 복부 통증과 하루 300 mL 정도의 땀노를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. 내원 당시 진찰 소견 상 결막의 충혈과 좌측 옆구리의 피하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좌하 복부 압통 및 신장 괴열을 의심할 정도의 육안적 혈뇨를 보였다. 혈액 검사 소견 상 백혈구 $17,150/\mu\text{L}$, 혈색소 9.1 g/dL , 혈소판 $51,000/\mu\text{L}$, 크레아티닌 9.0 mg/dL , 혈청 칼륨 6.0 mg/dL 이었으며 혈액 응고 검사 상 이상 소견은 없었다.

복부 및 골반 조영제 증강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좌측 신 하부 피막의 괴열과 골반강으로 조영제의 누출이 관찰되었으며 다량의 신 주위 혈종이 관찰되었다. 신장 내 종괴나 동정맥 기형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. 신 혈관 조영 검사 상 좌측 신 동맥 괴열이 관찰되어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. 시술 후 더 이상 조영제의 누출은 관찰되지 않았다. 입원 후 땀노성 급성신부전에 대해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. 확인된 한탄 바이러스 항체 역가는 1:8,192로 양성 소견을 보였다. 입원 10일째부터 소변량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입원 23일째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1.3 mg/dL 을 보여 퇴원하였다. 6주 후 시행한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신 주위 혈종이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현재 특이 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.